

# 2018 ANNUAL REPROT

CHSC for Health Rights and  
Safer World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



## 2018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건강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을 지향하는  
연구 조직이자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건강과대안은 2018년 한 해 동안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변화가 의료/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대안적 과학기술 활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세계적 현상인 페미니즘 및 젠더 이슈 재활성화에 발맞춰  
여성의 성 건강 및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을 했습니다.  
더불어 의료, 젠더, 노동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모순의 영역인  
간호 노동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비전염성질환 유행의 매개자로 지목되고 있는  
식품 및 음료기업 문제를 드러내고자  
먹거리 정의와 관련된 연구와 활동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날로 상업화되어 가고 있는 의료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의료서비스 생산 구조를  
보다 사회화하고 공공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실천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제주도 영리병원 폐지를 위한 연대활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일부 연구자나 전문가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역량 강화와 참여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시민 임파워먼트를 위한 강의와 토론회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공부와 실천을 결합하려는  
회원 및 후원회원 한 명 한 명의 참여와 격려로 만들어지는 '공동체'입니다.  
2018년에 어려운 여건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상근 연구원님들,  
자신의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주신 회원님들,  
건강과대안을 믿고 묵묵히 지원해주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에도 후원과 격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대표 김 주 연

## 의료서비스 생산을 보다 사회화/공공화하기 위한 연구활동

Researching ways to increase the socialization of  
medical service production and make it more public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의료서비스 생산을 민영화하는 핵심 장치인  
제주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국제적 연구 보고서들이 이윤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과대안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 영리병원 반대 측 패널 참여,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 교육 자료 발간,  
국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우회진출 등의 문제가 포함된 복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요구 활동 등,  
축적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영리병원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생산을 영리화하는 정책 추진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산업과 병원 간 이윤 중심 연계는 의료서비스 본연의 사회적 기능을 왜곡시키고  
의료접근권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생명의 상품화 몸의 상품화를 추진하는  
사회정책의 의료화(medicalization)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강과대안은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적 서비스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삼는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합니다.







## 병원 노동 문제의 상징, 젠더와 인권의 관점으로 간호 노동을 분석하다

Analyzing nursing labor, the symbol of hospital labor issues, with gender and human rights perspectives.

현재 한국 사회 의료서비스 생산의 문제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는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문제의 핵심 고리는 의료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 노동자에 대한 착취, 차별, 무시, 배제 문제입니다. 건강과대안은 특히 한국 사회 의료문제와 젠더 이슈, 노동권 이슈가 상호 중첩되어 핵심적인 갈등의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간호 노동 문제를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독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을 했습니다. 연구활동을 통해 상업화된 의료 시스템 내에서 착취당하는 간호 노동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젠더 불평등과 비민주적 위계 질서 속에서 전문주의적 전략의 전망과 한계를 짚어 보았습니다. 故 박선옥 간호사, 故 서지윤 간호사 공대위에도 참여하여 간호 노동 조건의 현실 변화를 위한 연대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젠더와 건강,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를, 여성을 신뢰하면서 더 큰 규모의 운동을 만들어 나가자!

For the protection of women's reproductive rights, let's build the bigger movement by trusting women and us.

2017년에 이어 2018년 역시 낙태죄 폐지 운동을 중심으로 한 여성재생산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건강과대안은 네덜란드의 산부인과 의사이자 여성재생산권 활동가인 '레베카 고퍼츠'를 초청하여 여러 사회단체와 함께 대중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국회 토론회 및 낙태죄 폐지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형법상의 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지구상 얼마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합치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퍼츠는 "사실과 증거는 우리 편이므로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여성들을 신뢰하는 가운데 지역차원에서 광범위한 운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한 바 있습니다. 건강과대안은 전 세계에서 싸우는 수 많은 여성들과 함께 여성의 재생산권과 젠더 평등을 위한 싸움을 지속합니다.





## ‘빅데이터는 사람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그리고 ‘생명산업’의 정치경제학

‘Big Data are humans.’ Political economy of healthcare big data, medical care, and bio-industry.

4차산업혁명 레토릭 속에 활성화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론에 힘 입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건강 영역의

빅데이터 논의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분석하는 연구와 활동을 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의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건강 영역의 빅데이터 활용론이

개인 정보 보호, 사회 불평등 증가, 감시 자본주의의 심화 등의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고 충돌하는지 분석하고

대안적인 빅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학계, 보건의료계를 망라하여 관련 논의를 확장하고자 마련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하여 현실 개입력과

개인 건강정보의 감시를 높이고 있습니다.



## 먹거리 산업화가 가져온 건강 파괴와 불평등에 대한 연구

Addressing practices, political economy, and power relations to build healthier food systems. Studying health and food corporations

먹거리 불평등은 건강불평등의 기반이 됩니다. 건강과대안은 먹거리산업과 건강 이슈를 사회화하고,

먹거리권을 사회권의 하나로 만들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산업화와 건강 영향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대중화 하기 위해 먹거리 산업화와 시스템 변화로 인한

건강 파괴에 대한 신뢰있는 과학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우리의 먹거리 생산, 유통, 판매,

밥상을 차리고 남은 먹거리를 처분하는 방법 등과 공중보건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합니다.

또한 푸드체인을 독점하려는 농화학 식품 기업 마케팅과 로비를 폭로합니다.

건강과대안은 건강한 먹거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1)먹거리에 대한 시스템적인 사고를 촉진시키기 2) 과학적 진실성과 연구를 공공재적으로 통제하기

3) 푸드 산업화 외에 대안이 없다는 TINA"there is no alternative"신드롬에 맞서기

4) 건강과 환경,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 원칙을 채택하기 5) 시민사회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 하에서

통합적인 식량 정책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제안하고 연구합니다.







## 시민사회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한 강좌 개설

Open seminar series to increase public communication and capacity building

### <자본주의의 병적 징후들> 연속 기획강좌

건강과대안은 2018년 번역 발간한 <자본주의 병적 징후들>을 교재로

자본주의와 건강의 문제를 논의하는 연속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본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건강 그리고 의료의 본질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젠더와 여성, 먹거리, 미디어, 정신의학, 국제정치와 공중보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청소년 워크캠프>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워크캠프가 올해도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이 선택할 직업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도 노원구 상상이룸센터와 함께 먹거리와 건강, 사회와 의료, 젠더 평등과 건강, 사회의학의 역사 등을 주제로 청소년들과 함께 강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보건의료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입문 강의>

보건의료 활동 입문을 막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교양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건강과대안은 건강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제도, 보건의료운동의 역사와 노동자 건강, 젠더와 건강불평등, 의약품과 특허 등의 내용을 통해 건강권 운동에 뛰어들 활동가와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모색합니다.

## 소책자 및 도서 출간 Publish

건강과대안이 발간한 도서나 한 해 동안 건강과대안 연구자들이 참여 발간한 도서를 소개합니다.



### <세상의 배경이 된 의사-고 배기영을 기리며>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18

이 책은 어느 정신과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촌 로터리 언덕배기에 자리한 동교신경정신과의원, 그곳에서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배기영의 삶을 정리한 책입니다. 배기영은 정신과 의사로서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 뿐 아니라, 노숙자, 고문피해자, 수배 중인 학생운동가, 사측의 탄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배기영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와 같은 거창한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살면서 그 흔한 사진 한 장 허락하지 않은 겸손한 삶 자체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자\_최규진

###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물과사상, 2018

이 책은 지난 1년간 한국사회의 다양한 아픔의 현장들에 대한 나뭇잎의 해석을 모은 글입니다. 크게 '가족', '낙인', '재난', '노동', '중독'이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요되는 아픔들, 당연시되는 아픔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오염된 아픔들'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류학적 논의들과 함께 기록한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아픔과 아픔 사이에 발생한 '오역'을 걷어내고 간접적으로나마 타인의 아픔을 오히려 공감하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독자들이 책을 통해 다가간 아픔의 현장에서 위로가 쌍방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_김관욱



### <배틀 그라운드> 후마니타스 2018

생명권 대 선택권의 이분법으로 임신중지 이슈를 바라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임신이 일어나고 있는 여성의 몸, 삶, 시간은, 그리고 인생의 어떤 시점, 어떤 환경에 있는지는 이분법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낙태죄를 둘러싼 이분법을 넘어 성과 재생산권의 주요 맥락들을 법, 정책, 종교, 문화, 보건의료, 인권 등의 전방위한 관점에서 훑아보는 책입니다. 책은 성과 재생산 권리가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헌법(자기운명결정권)과 보건의료(건강권)에 기초하여 설명합니다. 나아가 성과 재생산권이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여성과 같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뿐 아니라 재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경험들을 교차적으로 관통하는 문제임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공동저자\_윤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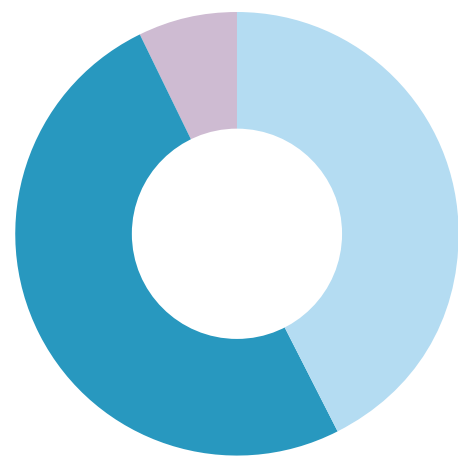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8년 재정 결산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8년 운영성과표(2018.1.1 - 12.31)

(단위:원)

| 수입   |             |       | 지출  |             |       |
|------|-------------|-------|-----|-------------|-------|
| 항목   | 금액          | 비율(%) | 항목  | 금액          | 비율(%) |
| 정기회비 | 43,460,000  | 42.7  | 인건비 | 78,672,450  | 75.0  |
| 후원회비 | 51,146,137  | 50.2  | 사업비 | 9,147,834   | 8.7   |
| 사업수입 | 7,198,100   | 7.1   | 운영비 | 17,094,848  | 16.3  |
| 기타수입 | 28,281      | 0.0   |     |             |       |
| 합계   | 101,832,518 | 100%  | 합계  | 104,915,132 | 100%  |
| 이월   | 11,479,886  |       | 이월  | 8,397,272   |       |

그림1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8년 수입 내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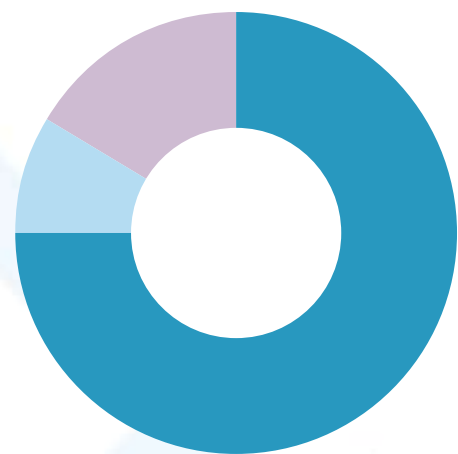


후원회비 ● 50.2%

정기회비 ● 42.7%

사업수입 ● 7.1%

그림2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8년 지출 내역 분포



인건비 ● 75.0%

사업비 ● 8.7%

운영비 ● 16.3%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소개

건강은 의료 서비스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윤만을 위한 기업 세계화는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파괴합니다.

건강과대안은 좁은 의미의 보건의료를 넘어 모두의 건강을 위한 사회와 그 대안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건강과대안은 의료보장제도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시장주의에 반대합니다.

의료는 이윤논리에 지배되어선 안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건강과대안은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기계 취급 받고 온갖 유해물질에 노출된 상황을 바꾸고자 합니다.

여성과 아동 그리고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는 모든 착취에 반대합니다.

건강과대안은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이 이윤의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생명/의료윤리의 사문화, 윤리적 고려 없이 자행되는 임상시험에 반대합니다.

건강과대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의 거주환경과 건강이 파괴되는 상황을 멈추고자 합니다.

건강과대안은 먹거리 독점과 불건강한 먹거리가 질병을 만드는 기업 세계화에 반대합니다.

광우병과 조류독감 GMO 등 문제는 먹거리와 생태계를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았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건강과대안은 약값이 너무 비싸 사람이 죽어가는 의약품 특허 체계를 반대합니다.

의약품은 독점되거나 이윤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필수약품을 위한 투자와 공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8년 운영위원

김관옥 의료인류학 박사, 가정의학전문의  
 김병수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  
 김의동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리병도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박준규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문화인류학과  
 유현미 사회학 박사수료  
 윤정원 산부인과전문의  
 이승홍 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진한 의사  
 채민석 치과의사  
 최규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 대표

김주연 가정의학전문의

### 부대표

문현아 정치학 박사

우석균 가정의학전문의·경제학 박사수료

### 감사

정성훈 금천서울치과

### 책임연구위원

이상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상임연구위원

박 건 사회학 박사

변혜진 사회학 박사수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04779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39(성수동 1가) 경동빌딩 2층

TEL 02-747-6887 FAX 02-3672-6887

e-mail [healthcommune@gmail.com](mailto:healthcommune@gmail.com)

homepage <http://www.chsc.or.kr>